

한국대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백운일
한국대댐회 기술부회장
대림산업(주) 전무

흔히 말해 나이 40세를 이르러 불혹(不惑)이라 일컫는다. 이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학문 수양의 발전 과정에 대해 ‘나는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三十而立).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四十而不惑)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五十而知天命).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六十而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대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필자가 한국대댐회 40년 역사의 과거를 회고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2000년도 이후의 최근 과거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간 한국대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1995년에서 2001년까지 이란 카룬댐에서 댐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01년 제69회 독일 Dresden 연차회의(2001.9.9 ~ 2001.9.15)를 시작으로 ICOLD(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개최된 제 69회 연차회의는 날짜를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911대폭발테러사건이 연차회의 도중에 발생하여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로 연차회의를 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10년 이상 한국대댐회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댐 기술 교류 회의(EADC, East Asian Dam Conference)에도 꾸준히 참석하였다.

한국대댐회는 소양강댐이 한창 시공 중인 1971년도에 창립되었다.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댐건설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돌이켜 보면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은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댐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 많은 댐공사(충주다목적댐, 안동다목적댐, 평화의 댐, 합천다목적댐, 대청다목적댐 등)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도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21세기가 되어서는 국내 댐 건설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으며 또한 다목적댐과 같은 대댐 건설이 환경

문제와 수몰지역 이주민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原電事故)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반면, 수력발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력발전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수몰지 발생이 불가피한 저수식 발전보다는 수몰지를 최소화하여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는 수로식 발전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채택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0년대 말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수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기술도 비약적으로 개발되었다. IT기술을 접목한 통합물관리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앞 다투어 4대강 사업의 성공비결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대댐회 창립 후 20여 년간은 외국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그 후 20여년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과정을 겪었다. 이를 통해 댐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한국대댐회는 댐 기술 교류에 만족하지 않고 댐기술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 세계 수자원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때이다.

그간 한국대댐회의 일원으로 국제대댐회 또는 동아시아 댐기술교류회의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대댐회의 활동이 전 세계의 기술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며 기술교류와 아울러 문화교류의 장도 될 수 있는 기술과 문화의 올림픽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기술자들이 모여 기술의 향연을 벌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두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의 경우에도 댐 기술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Solution을 제공하여 한국대댐회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대댐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행중인 어려운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한국대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훗날 우리나라도 국제대댐회 회장을 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혹의 나이가 된 한국대댐회가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로 기고문을 마무리한다.